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기업 현장 방문 | 알루미늄 수급 안정·수출 지원 강화

조달청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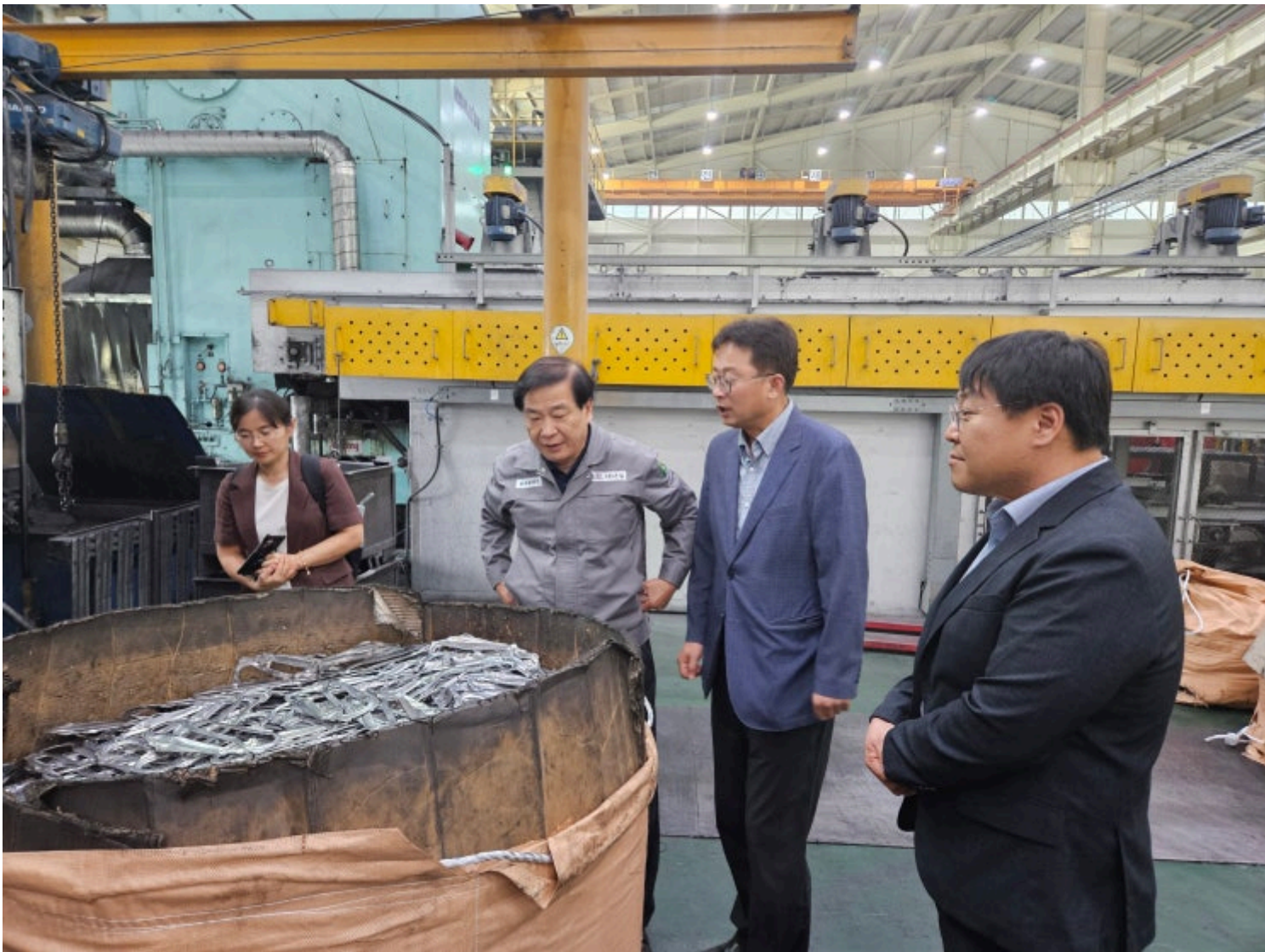
2025/09/30 09:33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12945140>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기업 현장 방문

알루미늄 생산기업 ㈜온일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및 조선 기자재 부품 열·냉간 단조 전문업체인 ㈜온일(대표 강성재)을 찾아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미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영향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가 비상시에 대비하고 안정적 원자재 수급 관리를 위해 비철금속 6종 약 27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로 중소기업에 우선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온일은 조달청 비축 원자재인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로도 수출하는 알루미늄 제품 전문기업으로 '25년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혁신·수출기업*'으로 지정되었다.

* 혁신·수출기업 지정 혜택 : 방출량 최대 3배 확대, 외상·대여 이자율 0.5%p할인 등

강성재 대표는 “경쟁력 있는 원자재 확보가 기업에는 가장 큰 과제인 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이용업체들이 비축물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이선아 사무관(042-724-7532)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기업 현장방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 강화 |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대폭 확대

조달청소식

2025/09/30 08:50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03653173>

혁신제품 공공구매 '30년3조원 수준 확대 ... '진짜' 성장 총력 지원

- '26년도 조달청 시범구매 정부예산안 839억원 반영 ... 올해보다 1.6배 증액
- 혁신조달 절차를 효율화하고 민간 전문성 활용해 혁신제품 '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
- 혁신제품 사후관리 강화와 R&D 등 혁신기업 성장 지원도 병행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6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여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범구매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현행 1.0~1.7% 수준의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보다 상향하여 공공수요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둘째,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효율화한다.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되었던 2단계 절차를 통합하여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다만, 당초 2단계 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기준(커트라인)을 두어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후 운영 과정의 숨은 규제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한다. 우선, 혁신제품 규격추가 시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매 수요에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관·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누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전문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신규 지정하고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제품 발굴을 촉진한다. 특히,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을 도입한다.

넷째, 혁신제품 관리 내실화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한다. 실증코디네이터는 AI 등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실증과정도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범구매 후 실증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미흡한 제품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다섯째,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올해 3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R&D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100억원을 반영해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실증·판로를 지원한다.

또한, 9월에 도입한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정착시켜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혁신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해소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상용화 이전의 혁신제품들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우리 경제가 ‘진짜’ 성장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도미영 사무관(042-724-7347)



조달청 이(가) 창작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30년3조원 수준 확대... '진짜' 성장 총력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일부 서비스 먼저 정상화

조달청소식

2025/09/29 14:09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2572096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나라장터 서비스가 29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금 지급부터 우선 정상화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말 동안 나라장터나 하도급지킴이 접속이 안 돼서 혹시나 대금 지급이 늦어질까 봐 걱정 많으셨죠?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소식에 많이들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나라장터를 포함한 18개 시스템이 멈췄기 때문인건 다아실겁니다. 다행히 조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오늘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복구의 비밀, 재해복구체계(DR)란? ?

이번 나라장터 서비스 정상화의 일등 공신은 바로 '재해복구체계(D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가 주말 동안 데이터 점검과 기능 테스트를 거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 알아두세요!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란 화재,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주요 시스템이 멈췄을 때, 다른 지역에 미리 준비해 둔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원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말해요. 덕분에 이번 사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답니다.

가장 먼저 정상화되는 기능은?

조달청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민생에 가장 밀접한 대금 지급 관련 기능을 우선적으로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부터 나라장터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도급 대금을 관리하는 '하도급지킴이' 역시 같은 날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임금, 자재 대금 지급 등도 문제없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 우선 재개 기능	나라장터 대금지급 (검사/검수, 대금청구, 지급결의 등), 하도급지킴이 모든 기능
?? 연기 및 제한 기능	입찰공고, 투찰, 개찰 등 (단, 시급한 건은 선별 처리)

?? 주의하세요!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입찰공고, 투찰, 개찰 등은 연기됩니다. 꼭 필요한 입찰이나 계약

건은 선별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관련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재개, 핵심 요약 ?

이번 조달청의 발표, 복잡하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서비스 중단 원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2. 신속한 복구: 광주센터의 재해복구체계(DR)로 신속하게 전환
3. 서비스 재개 시점: 9월 29일(월) 오전 9시
4. 우선 정상화 기능: 나라장터 및 하도급지킴이의 '대금 지급' 관련 모든 기능
5. 일시적 제한 기능: 안정화를 위해 입찰공고, 투찰, 개찰 등은 잠시 연기

빠른시일내에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쇼핑몰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나라장터 일부 서비스를 재개하며, 종합쇼핑몰 시스템은 장애복구시까지 일시 중단합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 관련업무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전체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라장터 서비스 재개 일시 : '25.9.29.(월) 09:00

□ 이용 가능 서비스 : 나라장터 일부기능

나라장터 서비스명	내용	참고사항
입찰	나의공고 조회 외 차단	- 발주계획, 사전규격, 입찰공고, 투찰, 개찰 업무 불가
계약/납품요구	신규(변경) 작성 차단	- 이미 체결 된 계약 목록 조회만 가능 - 물품계약의 직불 수수료고지서는 나라장터 시스템 정상가동 이후 자동발급 예정 - 기존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는 나라장터 납품요구 메뉴 이용(나라장터>계약>납품요구)
검사검수	기능제공	- 기존 종합쇼핑몰 검사검수는 나라장터 검사검수 메뉴 이용(나라장터>이행>검사검수>검사검수목록, 나라장터>이행>대금관리>대금관리목록조회)
대금청구	기능제공	- 세금계산서 연계 안 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 후 '나라장터 외 발급'으로 등록 - 보증, 채권 조회 가능 -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은 수기처리 필요 - 국방부(군수통합체계, 국방재정)와 연동이 불가하므로 대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32)로 문의 후 진행 - e호조(지방재정), 에듀파인(교육재정)은 연계 불가하므로 연계해지 요청공문 팩스발송 후 나라장터에서 검사검수 진행 * 업무별 팩스번호 : 물품/일반용역(0505-480-1805), 공사/기술용역(0505-480-1945), 외자(0505-480-1988)

* 위 기능 외 모든 기능 차단, 수기처리 불가피

* 온나라 연계기안 불가하므로 나라장터 내부결재 기능 이용

*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기간에 입찰서류제출마감일이 도래하는 공고 및 MAS 2단계경쟁은 서비스 정상화('25.10.13. 예정)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전자입찰을 자동 연기공고 예정(입찰서류제출마감일의 경우 '25.10.14.로 연기)

2025 최신 AI 공모전 가이드 | 조달과 혁신을 잡는 법

1분실무

2025/09/29 13:50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02698656>



1분 공공조달 실무 꿀팁

공공조달 분야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나는 지점, 바로 AI(인공지능) 관련 공모전입니다.

최근 조달청과 여러 공공기관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공조달과 AI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왜 AI와 공공조달인가?

AI 기술은 행정 효율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끄는 핵심 분야입니다.

공공조달 시스템에 AI가 접목되면,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스마트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공공조달 관련 공모전에서 AI 솔루션은 매년 주목받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준비 꿀팁

주제 파악

공모전마다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디지털 전환, 데이터, 클라우드 등)를 분석하세요.

사례 연구

기존 수상작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실현 가능성, 공공성, 혁신성)를 확인하세요.

스토리텔링

단순 기술 설명보다, “공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세요.

실행 계획

기술의 구현 방식과 확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기대 효과

공공조달과 연계된 AI 공모전에 참여하면,

단순 상금 이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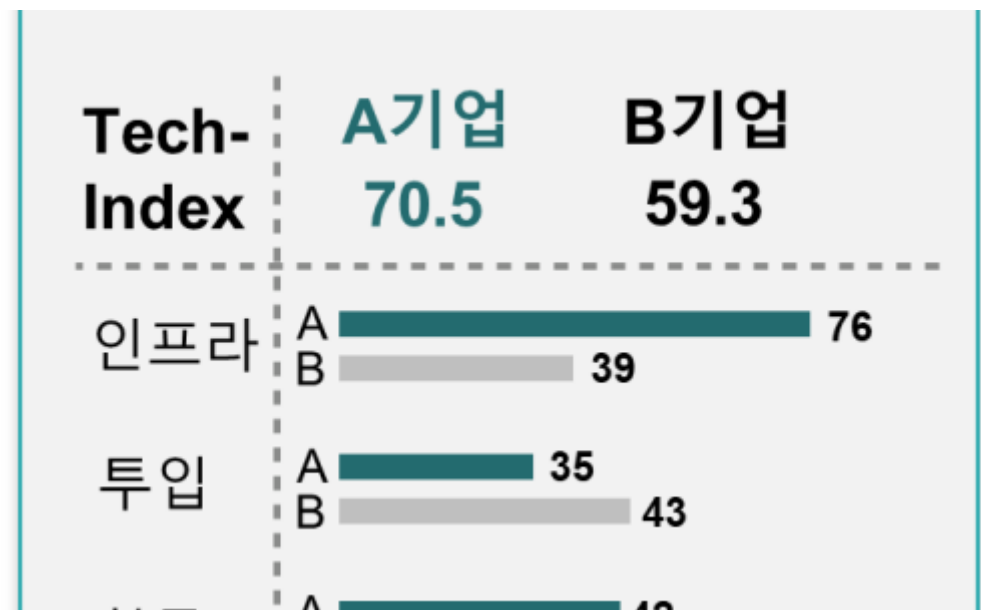
공공기관 협력 및 사업화 가능성

조달혁신제품·우수제품 지정 연계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강화

영상보기

AI와 공공조달은 앞으로 더 긴밀히 연결될 분야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공모전 준비에 실질적인 꿀팁을 얻고,
나아가 조달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달법인강산은 앞으로도 공공조달·혁신제품·공모전 소식을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플랫폼 'K-TOP' 개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플랫폼 'K-TOP' 개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
[blog.naver.com](#)



[조달에 AI를 더하다! 2025 공공조달 AI 아이디어 공모전 일정·방법·꿀팁까지](#)

[? 2025년 공공조달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조달에 AI를 더하다!” 요즘 어디서나 들려오는 AI...](#)

blog.naver.com



[‘AI 활용’ 필수 가이드, ‘이거’ 안 하면 네이버 블로그 제재될 수도?](#)

[생성형 AI 이미지·영상,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블로그 운영자라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AI 기술이 보...](#)

blog.naver.com

군납 유류 1조 4천억 공급...조달청, 업계와 현장 소통 나서

조달청소식

2025/09/29 10:50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12936243>

조달청, 군납 유류업체와 현장 소통 나서

- 정유사 HD현대오일뱅크 저유지 찾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8일 북한기 경유를 군(?)에 공급하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의 인천 저유지(???)를 방문해 저유 및 출하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군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상유 및 항공유 등 유류 8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필요한 1조 4천억원 규모의 유류를 계약 및 공급하였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전국 각 부대에서 소요되는 북한기 경유를 최고의 품질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운송비 등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적정 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군에서 사용되는 유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조달청에서도 유류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군납 유류 조달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방물자구매과 황민오 사무관(042-724-6332)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 군납 유류업체와 현장 소통 나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G-PASS기업 현장방문 |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맞춤형 지원 약속

조달청소식

2025/09/29 08:50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03650488>

조달청,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외조달 맞춤형 지원 약속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씨에이치씨랩 현장방문 및 점검
- 수출전문인력 확보 등 애로사항 건의에 재직자 훈련과정 등 적극지원 약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씨에이치씨랩(대표 차형철)을 방문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실험실 토털솔루션 제공업체인 ㈜씨에이치씨랩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실험실 장비(휴후드 등)를 스페인, 홍콩,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도 어렵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를 통한 유력 발주기관 면담, 조달기업 재직자 대상 무료 교육인 “해외조달 전문훈련 과정” 등을 소개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우리 조달기업의 국내 공공조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조달시장을 꾸준히 타겟팅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관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이현우 사무관(042-724-6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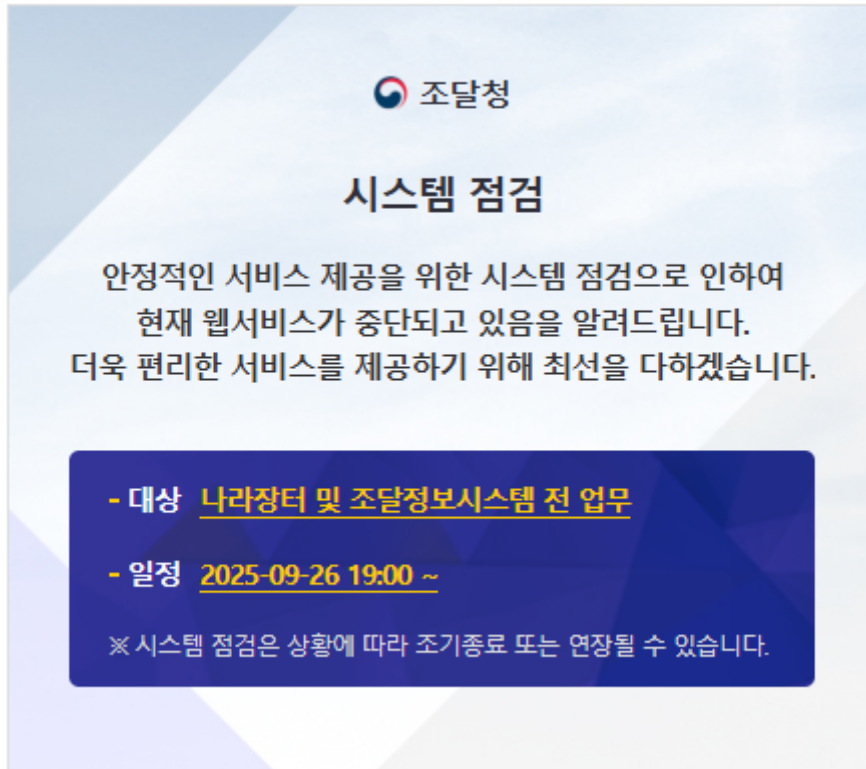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해외조달 맞춤형 지원 약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긴급공지]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중지

조달청소식

2025/09/29 08:16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25304916>



어제오늘 나라장터에 접속하려다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혹은 중요한 특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이상해서 애태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업무 관련 사이트 접속이 안 돼서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전산실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조달청, 특허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

이번 서비스 대란의 시작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입니다. 국정자원은 정부 부처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말 그대로 '정부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요. 이곳에 불이 나면서 정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단순히 몇몇 홈페이지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여러 서비스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달 업무와 특허 출원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알아두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 본원과 광주, 대구센터로 나뉘어 운영돼요. 이번 화재는 대전 본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서버를 둔 기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중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 하나가 바로 조달청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조달 입찰이 이루어지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완전히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대전 본원에 서버가 있는 나라장터는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지난 26일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 나라장터를 통한 거래액이 무려 145조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번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재 조달청은 긴급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해 조달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백승보 조달청장 코멘트

"긴급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해 조달업무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라장터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신속히 노력하겠다."

빠른시일내에 복구되어 정상업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달청, 추석 맞아 대전 태평시장 찾아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실천

조달청소식

2025/09/26 13:12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22482874>

조달청, 전통시장 찾아 지방살리기 소비 행사 추진

- 인구감소지역인 대전 중구 태평시장 방문, 상인들과 소비 활성화 논의
-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소외된 이웃 돕기 실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아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행사를 추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살피고, 상인회 운영진과 함께 식사하며 지방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조달청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명절 때면 항상 찾아 주는 고마운 이웃”이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백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기부·나눔문화 확산 및 관심 유도를 위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기부했다.

* 정림원, 성심원, 한몸, 성세재활원, 대전정신요양병원,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시설

* 문의: 운영지원과 정미숙 서기관(042-724-7023)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 전통시장 찾아 지방살리기 소비 행사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부터 규제 완화까지...조달청-이노비즈 간담회

조달청소식

2025/09/26 09:43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11260928>

조달청-이노비즈협회,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기업 성장지원 논의

-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계약기간 단축 등 조달규제 완화 방안 논의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 협력 약속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 협회)에서 정광천 이노비즈 협회장과 소속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노비즈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품식별번호 발급 기준 매뉴얼화 및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은 즉시 추진하고 그 외 건의과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더 많은 기술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공공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쓰겠다.”라며,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문의: 조달개혁과 주현정 사무관(042-724-6377)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이노비즈협회,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기업 성장지원 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